

2022 04 Vol. 382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귀향



저녁이면 꽃이 핀다
돌아가는 길 양 옆
가로등 꽃들이 피어난다

산과 들이 어두워도
하얗게 활짝 핀 꽃들
마을은 빛나는 꽃밭이다

반가운 안식처
문 앞 환한 등꽃은
그리움과 안도(安堵)의 꽃이다.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귀향
- 03 차례
- 04 부활대축일 강론 / 김형신(이냐시오) 신부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 06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3)
- 10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4)
- 14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5)
- 18 수방에서 / 김광서(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사순, 성주간, 부활
- 20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 김석영(요셉) 수사
성 힐라리온에게
- 22 선교 / 김석영(요셉) 수사
<문화 적응주의 선교>의 선구자
마태오 리치 신부의 생애 (上)
- 26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5길
- 28 응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구세주)이심을 보여 주셨음
- 29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10)
- 34 공동체 이야기 / 대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 38 가르멜프락 / 반숙자(벨라뎃다)
등에게
- 40 가르멜프락 / 박계용(도미니카)
눈 녹은 자리마다 설강화 피어나고
- 42 가르멜프락 / 김순상(베로니카)
그리움의 주머니(1)
- 44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박지현(요셉피나)
애들아, 귀한 얼굴 가리지 말거라!
- 47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7)
2022년 6월 영적나눔
- 49 비둘기
- 51 회원의 글 / 안병희(젼마)
부활
- 52 그림단상

표지그림

부활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2호 (2022 4.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부활 대축일 강론 *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김형신(예수의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중에서 누군가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시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접하기 힘든 죽음에 관한 소식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의 상황처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숨을 거두시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고, 허무하게 고인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거대한 불길이고, 성난 파도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과 같은 죽음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꿈꿔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런 비참한 속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계시거나 하는 거냐는 비판스러운 질문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신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살아계시다” 라는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절망뿐인 세상 안에서 희망을,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광활한 모래사막 안에서도 맑고 깨끗한 샘물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희망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떠냐? 내 말이 맞지?’ 라고 말을 하시는 듯이 당당하게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품도록 해주었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 둘의 관계는 더 이상 대립과 싸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죽음은 질 수밖에 없고 부활은 이길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결과가 나온 뻔한 대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기초로 2천 년을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속회원 여러분!

오늘날 마치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 중심의 세계가 부활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잘 먹고 잘살게 되면 그것이 선인 것처럼 쉽게 착각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물질 중심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으로 이끌고 무엇이 죽음으로 이끄는지 우리는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신앙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물입니다. 이 능력으로 힘껏 악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한 보증이 결코 쉽게 부활을 얻으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삶을 단지 꿈꾸고, 희망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부활은 땀을 흘리는 노력의 결실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올라가는 과정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1베드 5, 8)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확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겠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기쁨의 보증이고 희망이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3)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11) 과테말라에서의 창립

과테말라에 남자 가르멜이 창립된 데에는 1950년대 당시 그곳의 교황 대사로 있던 헤나로 베롤리노(Genaro Verolino) 주교의 공이 컸다. 헤나로 주교는 과테말라에 남자 가르멜이 진출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시 가르멜 수도회의 총장인 성녀 데레사의 실베리오(Silverio de Santa Teresa) 신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주지하다시피, 실베리오 신부는 가르멜 회원 중 20세기 최고의 학자로,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 전집(비판본)을 출간해서 두 성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분이다. 이분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과테말라에서의 수도원 창립을 요청받자, 총장 신부는 나바라 관구에 이 창립을 일임했으며, 나바라 관구 참사회에서는 그곳에 대한 창립을 의결하고 여러 창립 멤버를 파견했다. 이에 헤나로 교황 대사는 그들에게 수도원 창립지로 두 곳을 제안했다. 솔롤라(Sololá)와 키케(Quiché)가 그곳이다. 창립 멤버들은 두 곳을 직접 살펴본 후, 관구 참사회와의 상의 아래 솔롤라를 창립지로 선정하게 된다. 1953년 기존의 멤버들에 더해 추가 멤버들이 합류한 가운데, 이들은 솔롤라로 진출해서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곳은 아티틀란 호숫가에 있는 지역으로 20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 안착한 가르멜 회원들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했으며 주교좌 성당을 인수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사목

을 했다. 당시 멤버 중의 한 사람인 레스티투토(Restituto) 신부는 18년간 솔롤라 교구의 총대리직을 맡아 봉사했다.

이 지역의 복음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가르멜 수사들은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당 교구장인 마리아노 로셀(Mariano Rosset) 대주교에게 허락을 청했다. 이에 로셀 대주교는 1956년 그들에게 '갈리토'(Gallito) 본당을 위임해서 사목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가르멜 수사들은 4년간 그곳에서 사목하며 선교 활동을 이어갔으며 1960년 8월에는 성녀 데레사 성당으로 수도 공동체를 이전해서 활동을 넓혀갔다. 이 성당은 식민지 시절에 가르멜 수녀들이 설립한 수녀원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이다. 이곳은 1976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 크게 손상되어 다시 수리해야 했다. 또한, 가르멜 수사들은 '갈리토'를 기점으로 일종의 작은 가르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1960년 그곳에 경당을 설립했으며 그 후에도 신자들을 위해 가르멜 신심을 전파하기 위한 여러 개의 경당과 홀을 신설했다. 또한, 1971년에는 파나하첼(Panajachel) 지역에 진출해서 수도원과 성당을 지었다. 그러나 선교에 헌신한 가르멜 수사들의 많은 활동 이면에는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의 수많은 전투와 학살이 있었으며, 수사들은 많은 위협에 노출된 채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많은 시골 사람들은 멕시코로 가서 피신처를 찾아야 했으며, 수도자들 중에는 박해로 인해 과테말라를 떠나야 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나바라 관구의 수사들은 일찍부터 그곳 수도원의 발전을 위해 현지 출신 성소자들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지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했으며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양성소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당시 회원 중에 후안 파블로 멘디아(Juan Pablo Mendía) 신부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1982년 과테말라에 첫 번째 양성 수도원을 설립했다. 1989년 12월, 로마 총본부의 총평의회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지부를 설립할 당시, 이 양성 수도원을 포함한 과테말라의 모든 수도원들은 중앙아메리카 지부에 속하도록 조치했다. 1997년 5월 13일 이 지부는 중앙아메리카 관구로 승격되었다. 이 관구의 수호자는 과달루페 성모님이다.

12) 니카라과에서의 창립

가르멜 수사들이 니카라과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이다. 1941년, 콜롬비아의 우라바(Urabá)에서의 선교 활동이 금지되자, 그곳에서 활동하던 수사들 가운데 일부가 니카라과로 넘어갔다. 이들은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 관구에 속하던 수사들로서, 관구 참사회의 승인을 얻어 1945년 12월 23일 니카라과의 치치갈파(Chichigalpa)에 첫 번째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니카라과 지역이 수도회 내 행정구역상 나바라 관구에서 아라곤-발렌시아 관구로 변경되면서 이 수도원은 1950년 12월 폐쇄되고 말았다.

한편, 1949년 11월 아라곤-발렌시아 관구 소속의 천주 모친의 가브리엘(Gabriel de la Madre de Dios) 신부는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Managua)에 도착했다. 그는 당시 니카라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로사 이사벨 라스코스키(Rosa

Isabel Raskosky) 부인과 수도원 창립에 대해 의논했다. 로사 부인은 가르멜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가르멜 성모님께 봉헌된 수도원과 성당을 설립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재산 가운데 1헥타르(1만m²)에 이르는 땅을 희사했다. 그 부인은 이전에 이미 그 땅을 같은 목적으로 나바라 관구의 수사들에게 내어준 바 있다. 로사 부인과 가브리엘 신부 간의 만남이 있던 다음 날, 가브리엘 신부는 그 지역을 관할하던 레스카노(Lezcano) 대주교를 찾아가 창립에 대한 허락을 청했으며, 대주교는 즉시 이를 승인했다.

1951년 7월 15일 수도원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레스카노 대주교는 수많은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르멜 성모님께 봉헌된 새로운 성전의 공사를 위한 머릿돌을 직접 놓으며 축성했다. 공사는 약 5년 동안 진행되었고 마침내 1956년 5월 19일 첫미사를 봉헌하며 설립을 기념했다. 수도원에 속한 성당은 약 2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성당은 1967년 5월 25일 교구 내 정식 본당으로 승격되어 가르멜 수사들의 사목을 위한 중요한 못자리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1972년 12월 23일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 니카라과는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이때 이 성당 역시 크게 손상되고 말았다. 이에 1979년 3월 4일 이 성당을 대신할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기 시작해서 1980년에 완공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4년 7월 6일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성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후, 가르멜 수사들은 시간을 두고 차츰 이 성당을 복원했다.

니카라과 가르멜 수사들의 주요 사도직은 영적 지도이다. 수사들은 본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했다. 다양한

영성 강좌를 비롯해 레지오 마리아 운동, 가르멜 신심 단체 등을 지도하며 지역 교회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수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크레오(Recreo)의 가난한 지역을 비롯해 인근의 여러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도우며 사도직을 수행했다.

2009년 니카라과의 가르멜 수사들 가운데 그곳 출신 회원인 실비오 바에스(Silvio Báez) 신부가 주교로 서임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바에스 신부는 로마의 비블리쿰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테레시아눔에서 성경 영성과 성경 인간학 분야의 교수로 활동했으며 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바에스 신부를 마나과(Managua) 대교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했으며, 바에스 주교는 지금까지도 지역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13) 엘살바도르에서의 창립

니카라과의 창립자로서 큰 역할을 한 천주 모친의 가브리엘 신부는 엘살바도르에서의 가르멜 수도원 창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1952년 10월 25일 엘살바도르에 수도원 창립을 시도했으며 이는 그로부터 얼마 후 합류한 아라곤-발렌시아 관구의 여러 수사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임시 건물을 지어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으며, 1986년이 돼서야 비로소 수도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1988년 5월에야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 수도원과 수도원 성당은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으며 가르멜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수사들은 이곳을 바탕으로 가르멜 성모 신심을 널리 전파했다.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에는 가르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크다.

엘살바도르 가르멜 수도원 부속 본당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가르멜 수사들은 특히

예비 신자들을 위한 교리 교육을 비롯해 청년 신자 그룹과 부인 그룹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르멜 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피정과 영성 강좌를 통해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로살레스(Rosales) 병원에서도 사목하고 있다. 수사들은 1999년 신자들을 위해 피정과 영성 수련을 위한 피정집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14) 코스타리카에서의 창립

니카라과 가르멜과 엘살바도르 가르멜 창립에 큰 역할을 한 천주 모친의 가브리엘 신부는 코스타리카에 가르멜을 전파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브리엘 신부의 주도로 창립이 가능해지자 창립 멤버들은 1950년 11월 29일 코스타리카에 입국했다. 그곳의 주교는 쿠바 지역에 메다야 밀라그로사(Medalla Milagrosa) 본당을 제공해 주었으며, 가르멜 수사들은 이를 못자리로 가르멜 영성을 전파하고 신자들의 복음화에 헌신했다. 1972년 이들은 아주 신심 깊은 '로스 요세스' (Los Yoses) 지역에 코스타리카 출신 성소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본당과 양성 수도원을 설립했다.

15) 온두라스에서의 창립

온두라스에서 가르멜 수도원의 첫 번째 창립 시도는 1955년 테구치갈파(Tegucigalpa)에서 있었다. 당시 아라곤-발렌시아 관구의 가르멜 수사들은 이미 그곳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던 데레사 전교 가르멜 수녀들의 도움을 받았다. 수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피정집을 내주며 수사들이 안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관구장

인 레이날도(Reinaldo) 신부는 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가르멜 수도원 창립을 위해서도 멤버들을 파견해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두라스 수도원 창립을 위해 내정된 수사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야 했다. 창립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1968년 2월 21일이다. 당시 테구치갈파에서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 신심을 전파하기 위한 본당이 지정되면서 가르멜 회원들이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가르멜 수사들은 이곳을 못자리로 해서 약 10만 명의 주민에 이르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헌신했다. 이 지역은 크게 도시, 도시 주변부, 시골 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 주변부와 시골은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특히 시골 지역은 30개 정도의 마을에 1천 명 정도가 사는 '레파테리크' (Lepaterique)라 불리는 산악지역에 있어서 선교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985년 아라곤-발렌시아 관구는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이 지역에 수련 수도원을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1985년 12월 18일 수련 수도원을 설립해서 중앙아메리카 관구의 수련자들을 받아들여 꾸준히 양성소 역할을 해오고 있다.

16) 베네수엘라에서의 창립

베네수엘라에는 이미 1731년부터 가르멜 수녀들이 진출해서 가르멜의 영성을 살아 오고 있었다. 또한, 수사들 역시 1793년부터 1798년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머물던 시절이 있었다. 카라카스 교구의 주교로 스페인 가르멜 출신의 동정 마리아의 후안 안토니오 비아나(Juan Antonio Viana de la Virgen María) 신부가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를 동반하기 위해 2명의 수사 와 그의 고해사제인 정화의 후안 마누엘(Juan Manuel de la Purificación) 신부가

함께했다. 현대로 들어와서 베네수엘라에 가르멜이 전파된 것은 스페인의 아라곤-발렌시아 관구의 회원들을 통해서였다. 이들은 1950년대 말 베네수엘라에 수도원을 창립했다. 첫 번째 수도원은 발렌시아 교구의 산호아킨(San Joaquín) 마을에 수도원과 그 부설 성당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수도원은 1955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가토네그로(Gato Negro) 지역에 설립되었다. 수사들은 그곳에 본당을 비롯해 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신자들의 복음화에 헌신했다. 이곳에는 지부 본부를 비롯해 학생 수사들의 양성을 위한 학생 수도원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수사들은 1974년 메리다(Mérida)에 기도의 집을 건립해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이곳은 수련 수도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0년에는 바르키시메토(Barquisimeto)에도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이곳은 현재 청원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사들은 1993년 산크리스토타발(San Cristóbal) 교구에 있는 포트레로데라스카사스(Potrero de las Casas)에 기도의 집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1964년부터는 베네수엘라 출신 성소자들이 입회해서 스페인과 로마에서 양성을 받아왔다.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성소자들은 성장해서 베네수엘라에 가르멜 영성을 전파하는 데 큰 몫을 해오고 있다. 또한, 남자 가르멜의 왕성한 성장에 힘입어 메리다(Mérida) 가르멜 수녀원이 창립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 가르멜 회원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지부장을 역임한 오스왈도 아수아헤(Oswaldo Azuaje) 신부가 2007년 마라카이보(Maracaibo) 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원들은 1993년 모(母)관구인 아라곤-발렌시아 관구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총본부 산하 독립 지부로 승격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4)

마리 보댕-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권

데레사의 건강이 악화되다

1897년 6월 2일에, 레오니는 성체의 마리 수녀인 외사촌 마리 게렝이 머릿수건을 쓰는 예식에 참석했다. 가족들이 접견실에 모였을 때, 레오니는 데레사가 얼마나 아위고 창백해졌는지 확인하고서는 마음 아파했다. 데레사가 앓고 있던 폐결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7월 2일에, 라 뤼스에서 한 달간 게렝네 식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레오니는 떠나기 전에 데레사를 방문했다. 둘이 만났을 때, 레오니는 울음을 터트렸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데레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데레사는 레오니를 위로해주었다.

마리 게렝이 써 보낸 편지들, 실제로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였던 그 편지들을 통해서 가르멜 수녀원 소식들이 라 뤼스에 전해졌다. 그러한 편지들을 통해 레오니는 7월 8일에 데레사가 수녀원 지하층 병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렇게 되어 1층에 위치한 데레사의 수방은 영원히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비록 고통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환자는 간호 수녀와 자기를 방문한 다른 수녀들과 더불어 흥겹게 웃을 수 있었다. 마리 게렝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데레사는 종달새마냥 쾌활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기꺼이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지요.”

레오니는 어린 동생의 성덕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성덕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다. 1897년 7월 18일에 라 뤼스로부터 레오니는 셀린에게 데레사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써 보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지. 곧 끊임없는 이별.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늘 지켜보는 거야. 우린 이 지상에서 우리의 기쁨이었던 이를 막 잃어버리려 하고 있어. 작은 동생, 우리 데레사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데레사와 함께 기뻐하자꾸나. 데레사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또 다른 천사가 되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끔 도와줄 거야.

난 데레사의 행복이 부러워. 그렇기에 데레사를 치유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치유해달라고 청함으로써 작은 동생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려 하고, 하느님 뜻에 맞서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왜냐하면 분명 하느님께선 그렇게 순결한 백합을 서둘러 뽑으시려 하시기 때문이지. 언제나 충실하게 당신 것이었던 백합을 말이지. 그분께선 그 백합을 단지 우리에게 빌려 주셨을 뿐이고. 셀린, 넌 이 말을 알아듣

고 내가 느낀 감정들을 공유하려 하겠지.

바로 네가 우리의 작은 성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크게 위로가 되는구나. 만약 네가 데레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 기록을 얻는 것이 내겐 큰 위로가 될 텐데. 왜냐하면 난 사랑하는 작은 동생 가까이 머무르는 너희들, 곧 사랑하는 언니 동생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난 그런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 아마도 난 너희들만큼이나 용감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신 것이 옳아. 며칠 전에, 난 우리 천사(데레사)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 그 때문에 난 비탄에 빠져버렸단다.

언니 동생들에 대한 레오니의 사랑

게렝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레오니는 라 뤼스에 추가로 한 주 더 머물러야만 했다. 1897년 8월 초에, 레오니는 셸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적었다.

난 성심의 마리 언니에게 글을 써 보내려고 걱정했었어. 마리 언니가 지난번에 보내준 몇 통의 편지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말이지. 난 그 편지들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거든. 하지만 오늘이 네 축일이라, 너에게 우선권이 있지. 그래서 사랑하는 말언니는 내가 너희 중 한 사람에게 글을 써 보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 쓰지 않을 거라 확신해. 너희 모두는 사랑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 같아. 난 결코 내가 너희 모두에게 느끼고 있는 애정 모두를 표현할 수가 없어.

내 영혼과 마음은 늘 우리가 사랑하는 천사의 침상 곁에 머무르고 있는 너희와 함께 있어. 괴롭기는 하지만, 또한 데레사가 천국을 향해 우리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말이지. 작은 동생, 그날은 데레사에게도 우리에게도 경축하는 날이 될 거야. 난 데레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데레사가 우릴 떠날 때 내가 느끼게 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녀(데레사)가 마침내 완전히 행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크게 위로를 얻게 되겠지.

그렇게 끔찍한 이별 동안엔, 믿음과 관련한 생각들만큼이나 위로를 가져다주는 것은 없겠지. 사실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전부인 거지. 결국, 우리가 맹목적으로 죽음이라고 일컫는 그것은 실제로는 삶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귀양살이만 오로지 죽음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천사는 이 점을 깨닫고 있을 거야. 바로 그 점이 데레사가 너무 행복하게 이 귀양살이를 떠나려는 이유인 거고.

작은 동생, 난 한순간 나약해지고 말았어. 그때가 7월 31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난 우리가 사랑하는 작은이의 병세가 얼마만큼이나 진행되고 있었는지 듣게 되었거든. 게다가 거기에 더해 여기 라 뤼스에 다음 주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하지. 그런 상황이 나에겐 너무나 버거웠단다! 하지만 예수님께선 내가 견뎌낼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 그리고 난 내가 그런 시련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 게다가 난 그저 오늘 하루만 생각해야 하는데.

레오니는 데레사로부터 받았던 마지막 두 통의 편지를 자주 읽고 또 읽었으며, 깊이 감동받았다. 첫 번째 편지는 다음과 같이 단지 몇 줄에 불과했는데, 1897년 6월 말에 작은 종이쪽지에 연필로 적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작은 레오니 언니, 난 널 행복하게 해주려는 언니의 열성에 정말 감동받았어. 난 언니가 나한테 만들어준 작은 담요를 받고서 너무 기뻐고, 진심으로 언니에게 감사해. 왜냐하면 그 담요가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일 영성체 때 특별히 언닐 위해 기도할게. 언니에게 사랑과 입맞춤을 보내. 언니의 작은 동생, 아기 예수의 데레사로부터.”

레오니에게 보낸 데레사의 마지막 편지

데레사가 레오니에게 써 보낸 마지막 편지는 선종하기 한 달 반 전인 1897년 7월 17일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그 편지는 신중하면서 수직으로 된 필체로 쓰였다.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 난 다시금 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행복해. 며칠 전에 난 여기 지상에서는 절대로 다신(언니와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느님께선 내 귀양살이가 조금 연장되기 바라신 것 같아. 그렇게 되었다고 심란해하진 않아. 왜냐하면 난 내 의지로 일 분이라도 더 일찍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라고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여기 지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내어주신 몫을 찾아내는 데 늘 집중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랑하는 작은 언니, 언니의 몫은 놀라워. 만약 언니가 성녀가 되고 싶다면, 그건 언니에게겐 쉬운 일일 거야. 왜냐하면 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은 언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와 마찬가지로 언닐 오직 “필요한 한 가지”, 다시 말해서 심지어 언니가 외적인 일들에 헌신적으로 몰두하는 동안에도, 언니의 유일한 목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그분과 더 친밀하게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언닐 내가 천국에 있게 될 때 언닐 위해서 성심껏 기도해 달라고 청했었지. 난 그분께 언니의 간청을 전해드리고, 위대한 성녀가 되기 위해 언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언니에게 보내주시기를 청하는 것을 잊지 않을 거야. 안녕. 사랑하는 언니. 난 언닐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 천국에 가려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있게 될 때 언닐 더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다음번에 더 많이 적을게. 하지만 지금은 적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가는 자야 하거든.

끔찍한 육신의 고통과 영혼 내면의 위로할 길 없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이로운 작은 성녀는 머지않아 들어갈 천국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지닌 채 글을 적었으며, 어린아이 같은 쾌활함으로 편지를 끝맺음했던 것이다. 마지막 며칠 동안, 데레사는 자기를 간호하는 셀린과 대화하면서 자주 “아가”라는 어린아이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데레사는 자기를 간호하면서 지켜봐 주는 사랑하는 언니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썼다. 데레사는 언니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하찮아 보이는 바보 같은 짓을 맘껏 하게 해 줘요!” 하지만 그녀는 때때로 몇몇 단어들을 잘못 사용했는데, 바로 그런 단어들을 통해 데레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아가”라는 말은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던”, “절대로 고통을 멈추지 못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이 먹은, 늙은 여인” 을 뜻했던 것이다.

데레사는 이 지상의 것들만큼이나 천상적인 것들과도 편안하게 완전히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냈다. 레오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생애 내내 영향을 미쳤다. 데레사가 레오니의 서른네 번째 생일에 주었던 상본, 곧 데레사가 그때까지 레오니에게 선물했던 것 중 마지막 상본을 통해서, 하느님의 지문이 레오니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들의 형상 속에 남겨졌던 것이다. “사랑하는 작은 언니,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하느님의 어린양을 따를 그 어느 날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지. 1897년 6월 3일을 기념하며. 아기예수와 성면의 데레사 수녀.”

1897년 7월 17일, 바로 데레사가 레오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던 같은 날, 고통을 겪는 중에 데레사는 “작은 어머니”인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내 사명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고 느껴. 내 사명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혼들에게 내 작은 길을 내어주는 것이지. 만약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허락하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천국은 여기 지상에 있게 될 거야. 그래, 난 영원히 지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야. 왜냐하면 천상적인 통찰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우릴 돌보아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데레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었을 때 했던 예언은, 자기의 작은 동생이 “하느님의 말씀” 이었다고 확신했던 레오니가 선종할 때까지 매달렸던 바위가 되었다.

데레사의 선종

매일 아침마다 레오니는 소식을 들으려고 황급히 수녀원을 찾아갔다. 심지어 언니 동생들을 만날 수 없을 때조차도, 레오니는 입구에서 평수녀들을 만나 데레사가 걸린 병의 진행상태에 대해 들어 알게 되었다. 폐결핵은 장에(까지) 도달했다. 데레사에겐 고통과 더불어 정신의 명료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데레사는 언니들과 다른 동료 수녀들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공동체의 모든 수녀들은 그 믿음에 대해 감탄했으며 레오니는 그 믿음에 압도당했다.

1897년 9월 30일 저녁에, 레오니는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서 외숙모와 외삼촌과 더불어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쪽지가 전해졌다. 그 쪽지는 폴린이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천사가 천국에 있어요. 그 애는 7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가슴에다가 십자고상을 누르며 ‘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 애의 두 눈은 천국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애가 무얼 본 걸까요?”

데레사의 선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레오니의 이름을 맨 앞에 두었다. 게다가 10월 4일 월요일에는 게렝 씨가 아팠기 때문에 레오니가 조문객들을 가르멜 수녀원 성당 안에서 거행되었던 장례식으로, 그리고 리지외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상 레물뢰 공동묘지의 매장지로 인도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35)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3. 오늘의 독자들 앞에서: 단순한 결산

자서전 25장과 더불어 성녀 테레사의 신비체험이 붓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녀는 미래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비 현상들이 의혹을 사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소개한 성녀를 일컬어 중병에 걸렸다거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자신의 무의식에 은밀히 공모한 사람이라며 비난해왔다.

성녀 테레사 역시 이미 당시의 일부 학자들 편에서 자신을 엄하게 단죄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진단을 안 이상, 성녀 편에서는 더 이상 경계할 필요나 설명할 필요도 그에 대해 글을 쓸 필요도 없었다. 성녀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놀랍고도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다: 1) 우선, 그의 글에는 심리적으로 묵과하는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성녀는 자신의 글을 통해 신비 현상에 대해 단죄하는 이들을 거슬러서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저항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적잖은 고통을 받았다. 2) 신비 현상에 대한 엄격하고도 세밀하며 정확한 분석과 관련해서, 이 현상을 식별하는 성녀의 기술은 현대의 과학적인 작업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오늘날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만일 지난 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어떤 의사가 성녀 테레사는 살페트

리에르(Salpêtrière)¹⁾ 정신병원에 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는 진리에서 아주 멀리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병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즉, 샤르코(J.M. Charcot)²⁾ 박사의 입장처럼, 성녀는 예리하고 비판적인 관찰의 스승인 것이다.”

제26장

내적 말씀들에 대한 성녀 테레사의 확신

내적 말씀들

다른 형태의 경험들에 대한 선언:

“너에게 살아 있는 책을 주겠다”

『자서전』의 이야기는 이제 26장과 더불어 1559년에 이르게 된다. 당시 성녀의 나

1) 역자 주: 프랑스의 파리 외곽에 있는 유럽 최대의 정신병원이다. 근대 정신의학, 신경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병원이다. 본래 이 병원은 루이 14세가 파리 시내의 빈민들을 수용할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1656년 4월 27일 반포한 칙령을 통해 설립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병원’이라기보다는 ‘구빈원’(救貧院)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파리의 빈민, 부랑자, 정신병자, 창녀 등이 수용되어 관리됐다. 18세기 말부터 ‘피넬’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이 병원은 정신의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1801년 근대정신의학의 탄생을 일컫는 『정신이상에 관한 의학적, 철학적 고찰』이란 책을 출간했다. 또한, 피넬 제자로 ‘에스퀴롤’이 그 뒤를 이어 정신 의학을 발달시켰다.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와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샤르코’가 이곳에서 신경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병원은 다시 한번 그 빛을 발했다.

2) 역자 주: 장 마르탱 샤르코(Jean Martin Charcot, 1825-1893): 프랑스 신경학자이며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많은 의학용어들이 만들어졌다.

이는 44살이다. 성녀의 신비체험에 관한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본 장에서 변화된다. 즉, 성녀는 내적 말씀들(hablas interiores)에 대한 확신에 이르며 신비적 현시(visiones místicas)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본 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 둘 중에 첫 번째, 즉 ‘내적 말씀들’을 다시 풀어내기 시작했다. 이 점을 제목은 잘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안을 계속 다룬다.” 다시 말해, 26장은 내적 말씀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뤘다. 반면, 두 번째 부분은 이어지는 27장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을 미리 다뤘다.

성녀는 본 장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녀 자신의 고해 사제들과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들 모두는 익명(匿名)으로 처리되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최고 종교 재판관인 발데스의 페르난도(Fernando de Valdés)도 등장한다. 본 장의 전체적인 스케마는 다음과 같다:

- 1절: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영혼의 확신과 확고함. 하느님에 대한 신뢰. 사랑
- 2~4절: 성녀 데레사와 그의 조언자들 간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
- 5~6절: 선언: “슬퍼하지 말아라. 너에게 살아 있는 책을 주겠다.”

1. 세 가지 선별된 말씀들

이 시기에 성녀 데레사의 체험에는 ‘내적 말씀들’이 풍부히 내렸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런 일은 너무 잦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2절).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성녀의 내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다.” 또한, 가끔은 경고하는 말씀도 있었다: “주님은 저와 다른 분들의 위험을 몇 번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동).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정하는 말씀도 있었다: “또한, 주님은 가끔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무슨 불완전한 짓을 저지르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은 영혼을 무(無)로 돌리기에 넉넉할 정도이며, 적어도 그것은 생활을 개선하게 해줍니다” (상동).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말씀도 있었다: “미래의 사정들을 3~4년 전에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은 모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상동). 이어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이처럼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너무도 많기에, 제가 보기에 (영혼은 그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상동).

다음의 세 가지 내적 말씀은 세 개의 이정표로서 24장, 25장, 26장에서 성녀 데레사의 여정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세 개의 장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성녀가 보여준 저항의 시기에 대해 전하고 있다.

- 자 24, 5에서 첫 번째 황홀경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녀의 애정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제 네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 오직 천사들과 대화하여라.” (1555년경)
- 자 25, 18에서 내적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의 주인과 동일시되고 있다: “두려워 말아라. 딸아. 나다” (아마도 1557년으로 추정된다).
- 자 26, 5에서 절박한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선언이 있다: “너에게 살아 있는 책을 주겠다” (이미 이때는 종교 재판소에서 「금서목록」이 나온 직후인 1559년이다).

2. 성녀 데레사의 신비적 은사는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것인가?

아마도 이 점은 26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신비적 말씀들에 관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

널까 싶다. 본 장에서 성녀가 언급한 신비적 말씀들은 성녀 자신만의 것인가? 즉, 그것은 지극히 성녀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은총들인가? 아니면, 은사적인 기능을 갖는 것일까? 다시 말해, 적어도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신비체험은 은밀한 것인가? 아니면, 신비체험을 한 당사자를 넘어서 빛나는 것인가?

이미 성녀는 앞서 여러 번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이 점에 대해 암묵적으로 대답한 바 있다. 즉, 성녀 자신에게 선사된 이 은총은 그 자체로 삼중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1) 신비(하느님의 행위)를 체험하는 것, 2) 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 3) 이 신비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녀의 『자서전』을 가질 수 없었으며, 아마도 신비적인 실재에 대한 성녀의 교육도 전혀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내적 말씀은 자신을 자극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했다. 즉, 주님은 성녀에게 하신 말씀을 단지 성녀 자신만을 위해 보관하길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에 대해 침묵하지 말도록 당부하셨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것을 고해신부에게 고백하도록 했다. 만일 누군가가 성녀에게 신비적인 사정과 관련해서 그대로가 좋다고 조언한다면, 성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초기에 제게 고해성사를 주시던 고해신부님 가운데 한 분은, 그것이 이미 선한 영임이 입증되었으니, 침묵하고 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 이처럼 성녀가 들은 내적 말씀은 분명히 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성녀 데레사의 내밀한 말은 흥

미롭다.

“왜냐하면, 고해신부님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유감을 느꼈으며, 때로는 중죄들을 고백할 때보다 더 많은 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큰 은혜 들일 경우, 저를 믿어 주지 않고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유감을 많이 느꼈으며,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떨어버리는 것처럼 보여, 이 때문에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고해신부님으로부터 아주 나쁜 권고를 받았다는 것, 어떠한 식으로든 이런 사정을 제가 고백하던 분에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커다란 안전이 있으며 이를 거스르면 때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동).

아마도 이는 다른 신비가들의 경우와는 다르지 싶다. 그러나 성녀 데레사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그렇다. 성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 신비체험을 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녀가 한 전체적인 신비체험에서 드러나는 요소이다. 성녀의 신비체험 전체가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활동을 증언하도록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단지 가르멜 수도회나 가톨릭교회라는 폐쇄된 그룹 내에서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종교 간 대화에서, 문화의 세계에서, 신자들만이 아닌 비신자들 앞에서 증언하라는 사명이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신비체험과 더불어 하느님의 대변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이 제게 하신 바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19, 15).

신비가인 성녀 데레사가 견지한 수칙은 “나의 비밀을 나에게! 나의 비밀을 나에게!” (secretum meum mihi! secretum meum mihi![이사 24, 16]: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에 대한 불가타 성경의 오역이다)가 아니라, 아찌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도둑들에게 했듯이, 위대하신 임금님의 비밀들을 애

원하고 소리쳐 알리는 데 있다(6궁 6, 11).

3. “많은 책을 읽지 못하도록 빼앗아갔을 때...”

성녀 데레사는 이런 완곡한 어법과 더불어 「금서목록」 출간으로 인해 성녀를 둘러싸고 일어난 커다란 이변에 대해 암시했다. 「금서목록」 출간은 1559년 여름에 최고 종교재판관인 발데스의 페르난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녀는 이를 통해 「금서목록」 자체보다도 그 출간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로망스어로 된’ 영성 서적들에 대한 금서 지정은 성녀로 하여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선반에 보관해 둔 영성 서적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많은 유감을 느꼈습니다” (5절).

이 에피소드는 성녀 데레사의 생애 가운데 정확한 맥락 속에서 소개되고 있다. 1557년부터 1559년 사이에 성녀는 자신과 뜻을 함께 하던 유명한 5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내적 말씀들’을 악마적인 것으로 진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신학 조언자들의 이런 저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즉 성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금서목록」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도적인 손길을 통해 타격을 주었다. 그에 대한 저항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녀는 자기 수방에 간직해 두었던 빈약하기 그지없던 ‘도서관’마저 내놓아야 했다. 그때 성녀의 내면에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내적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솟아올랐다: “너에게 살아 있는 책을 주겠다” (5절).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저는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시를 받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동). 그 후로 그리스도의 현시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참된 책이셨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진리들을 보았습니다” (상동).

4. 26장에 대한 메모

「금서목록」: 이 문서의 정확한 라틴어 제목은 다음과 같다: 「Cathalogus librorum, qui prohibentur mandato illustrissimi et Reverend. D.D. Ferdinandi de Valdés, Hispalens. Archiepiscopi, Inquisitoris Generalis Hispaniae... Pinciae [Valladolid] 1559」(스페인 사람이자 대주교이며 스페인의 최고 종교재판관인 고명하고 존경하는 발데스의 페르디난도의 명에 의해 금지된 책들의 목록). 이 문서는 우선 라틴어로 된 광범위한 책 목록을, 다음으로 “로망스어로 된 책들”의 목록을 담고 있다. 그중에는 성녀 데레사가 좋아했던 많은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그라나다의 루이스의 여러 작품들, 아빌라의 성 요한의 『들어라 딸아』,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의 책 중의 한 권, 에비아 이 팔마의 책들, 로망스어로 된 『성인들의 꽃』, 『교부들의 생애』, 시편집, 로망스어로 된 「주님의 기도」 해설서, 등이 그렇다. 종교 재판소는 “이런 금서들을 자기 손 안에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공개적으로) 칙령을 읽도록” 명했다. 이 칙령의 출간에 대한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따랐다: “1559 번째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해, 8월 17일, 바야돌리드에서” (en Valladolid a 17 día del mes de agosto, año del nacimiento de nuestro Salvador Iesuchristo de 1559).

(다음 호에 계속)

* 수방에서 *

사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이전으로 회복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멈출 수 없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은 질병에서 오는 고통보다 희망을 꿈꿀 수없는 절망감과 지금까지 누리던 생활 속에서의 소소한 기쁨마저 앗겨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공백기처럼 보낸 시간 안에서 가까이하고 싶어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전례와 공동생활과 친교의 모든 것들이, 감사드리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순과 부활이 다가옵니다. 이번 시기에는 준비 없이 흘러버린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더 겸손되고 열려있는 가난한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거리두기를 이겨내기 위해 무조건적인 의탁과 신뢰로 주님을 더 내밀하게 가까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호소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와 희생의 무게를 받아들여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수난 현장에 끝까지 함께 하신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은총의 사순시기 만드시길 기도합니다.

성주간 성주간의 영적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절정의 하나님 체험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고한 희생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실존적 한계를 겪는 예수님을 맞닥뜨리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뺏속까지 새기면서 받아들일 때 영원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하나님 신비의 두 차원이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합일하는 점점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두 막대기가 교차된 곳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의 심장이 꿰뚫렸으며 그 상처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영혼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참된 방식으로 십자가를 실행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투신하는 자세로 자신만의 십자가를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와 하나 된 영혼은 정지된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새롭게 사랑을 살아가는 성숙한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은 현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실증적 팩트(fact)로서 증명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빈 무덤뿐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라 당신과의 깊은 신뢰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 사랑을 알아보는 제자들만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텅 빈 무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텅 비게 된 것이지요.

절대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겸손한 믿음 없이는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 마음과 믿음으로 빈자리로 사랑과 빛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 만나는 기쁜 부활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광서(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성 힐라리온에게

A San Hilarion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한 투사(鬪士) 있어 세상과
그 족당(族黨)을 오늘 이기시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들아
이 지름길을 따라가자

Hoy ha vencido un guerrero
al mundo y sus valedores.
—Vuelta, vuelta, pecadores,
sigamos este sendero.

2. 깊숙한 고요를 좇아
그의 맑은 가난을
익히며 살 때까지
죽지 말기로 하자
오, 저 우리 투사
그 숨씨 장(壯)키도 하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들아
이 지름길을 따라가자

Sigamos la soledad,
y no queremos morir,
hasta ganar el vivir
en tan subida pobreza.
¡Oh, qué grande es la destreza
de aqúeste nuestro guerrero!
—Vuelta, vuelta, pecadores,
sigamos este sendero.

3. 고행(苦行)의 무기(武器)로
루치펠 이기고
인내로 싸우니
두려울 것 없으라
이 기사(騎士) 따르면
우리도 이기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들아
이 지름길을 따라가자

Con armas de penitencia
ha vencido a Lucifer,
combate con la paciencia,
ya no tiene que temer.
Todos podemos valer
siguiendo a este caballero.
—Vuelta, vuelta, pecadores,
sigamos este sendero.

4. 돕는 사람 누구도 없이
십자가 홀로 안으셨다
그 안에 항상 빛을 보누나
죄인들에게 내리신 빛

No ha tenido valedores,
abrazose con la cruz:
siempre en ella hallamos luz,
pues la dio a los pecadores.

아, 우리의 이 투사님
 복된 사랑을 지니셨어라
 돌아오라 죄인들아 돌아오라
 이 지름길을 따라가자

5. 이제금 영광을 얻었도다
 괴로움도 끝나고 다시 없도다
 쌓은 공(功) 어느덧 누리시니
 그 영광 짜장 드높아라
 행(幸)스럽다 개선이여
 우리 투사 용맹하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들아
 이 지름길 따라가자

< 해설 >

이번 달에는 성녀 데레사가 특별히 공경하던 한 성인께 바친 헌시(獻詩) 한 편을 소개한다.

성 힐라리온에 대한 연대기나 성인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알 수 없으나, 이 시의 원문 주석에 의하면 '원래는 투사(騎士 : 騎士 기사)였다가 수사(修士)가 되어 자신이 가르멜의 거룩한 성도(聖徒)가 되었다고 믿었던 성인' 인데 축일은 10월 21일이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르멜 고유 성무일도>에는 없지만, 성녀가 사시던 중세시대에는 성덕이 뛰어나 많은 이들의 공경을 받으며 회자(膾炙 : 많은 이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 되던 인물로서, 아마도 팔레스티나 성지 회복을 위해 참전한 중세의 십자군 기사였던 것 같다.

이 시는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이 별로 없어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단어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을 풀이해 보면, 1절에 '족당'이라는 말은 '족속'이라는 말로 대신하면

iOh, qué dichosos amores
 tuvo este nuestro guerrero!
 —Vuelta, vuelta, pecadores,
 sigamos este sendero.

Ya ha ganado la corona,
 y se acabó el padecer,
 gozando ya el merecer,
 con muy encumbrada gloria.
 iOh venturosa victoria
 de nuestro fuerte guerrero!
 —Vuelta, vuelta pecadores,
 sigamos este sendero.

될 것 같고, 3절에 나오는 '루치펠'은 '악마의 우두머리'로 이해하면 되고, 5절의 '이제금'은 '이제서야'로 바뀌면 되고, '짜장'이라는 말은 좀 낯설긴 하지만 옛날에 어느 지방에서 쓰던 말 같은데 '과연, 정말로'의 뜻을 지닌 말로 '진정' 또는 '정녕'으로 바꿔도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스럽다 개선이여' 역시 아주 낯선 말인데 스페인어 원문을 찾아보니 '승리의 행운이여' 정도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다.

성녀는 이 시에서 과거에 용맹한 투사였던 이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닦은 수덕과 고행으로 높은 성덕에 도달한 것을 생각하며, 현재 타성과 안일에 젖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회심하여 열성을 되찾기를 권고하는 시라고 생각한다.

* 관구장님의 의견에 따라 스페인어 원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 선교 *

<문화 적응주의 선교>의 선구자 마태오 리치 신부의 생애 (上)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선교(宣敎)’란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에서 쓰는 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퍼는 일을 말하며, 원래는 ‘파견(派遣)’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missio’에서 유래한다. 선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것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도(使徒)들의 파견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므로 선교의 의미 안에는 파견이라는 뜻과 함께 복음의 전파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선교의 사명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부터 모든 신자에게 부여되었으며, 2천 년 교회 역사상 선교의 열정을 지닌 하고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통해 입교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장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은 선교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불모지에 가서 비신자들에게 복

음을 전하면서, 부수적으로 가르쳐 주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전례 시기나 축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례 행위나 행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선교사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식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었다. 그러다가 우리 가톨릭교회의 경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공의회 정신에 따라 선교사들은 새로운 선교지에서 선교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이 포함되어있는 지역 사회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파악해서 이들이 속해 있는 기존의 사회, 문화, 전통적인 종교 등과도 꾸준한 대화를 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의 핵심을 전하는 지역 교회의 토착화 선교 방식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거의 5백 년 전에 가톨릭교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로부터 중국에 들어와서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하며 중국의 학자들과 어울린 선교사가 있었다. 그는 이미 중국보다 발전한 서양의 과학, 천문학 등을 중국의 황실이나 지식인 사회에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중국의 학문이나 사상 등을 서양에 소개하는 등, 동서(東西)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워 성장시킨 선구적인 선교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마태오 리치 신부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니, 18세기 후반 일 년에 두어 번 북경에 다녀오던 조선의 사신들에 의해 그분이 저술한 <천주실의> 등의 서적

을 접하면서 천주교를 알게 된 소위 서학(西學)을 공부하던 실학과 학자들의 모임에서,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외부에서 들어가 활동한 선교사가 없이 자발적으로 탄생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비록 그분이 직접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그 옛날 중국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마음에서라도 그분의 선교 방식과 활동하던 모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서양자 수녀님이 쓴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이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나름대로 편집하여 서술한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생애를 3회에 걸쳐서 소개하려고 한다.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신부는 1552년 10월 6일에 이탈리아 안코네(Ancone) 주 마체라따(Macerata)에서 9남 4녀 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열아홉 살이 되던 해인 1571년 8월 15일에 예수회에 입회하였다.

예수회 제4대 총장이던 에브라르 메르꾸리앙(Everard Mercurian) 신부는 1577년 5월 18일 마태오 리치 수사와 미카엘 루지 에리(Michael Ruggieri, 중국명 羅明堅) 신부 등 예수회 선교사 열세 명을 인도(印度) 고아(Goa)에 파견하였다. 동양으로 파견되는 이들 열세 명의 선교사들은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를 알현하였다. 당시 75세이던 과묵한 교황은 젊은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격려와 강복(降福)을 해주었다. 그 후 예수회 선교사들은 포르투갈 국왕을 알현하고 리스본에서 배를 기다렸다. 이때

마태오 리치 수사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1578년 열세 명의 선교사들은 세 척의 배에 나누어 탔다. 이때 마태오 리치 수사가 탄 배는 성 루이즈 호였다. 성 루이즈 호는 쌍돛을 단 범선(帆船)이었고, 배에는 모직품, 수정, 유리, 포도주 등이 적재되었다. 성 루이즈 호에는 군인, 상인, 탐험가 등 승객 5백여 명이 타고 있었다. 배는 포르투갈의 리스본항을 출발한 뒤 한 달 정도 항해하여 적도(赤道)에 이르렀다.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라서 찌는 듯한 더위에 식수는 모두 부패하고 식량도 바닥나게 되었다. 배는 좁은 데다 승선 인원이 많아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곧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시체는 그대로 바다에 던져 수장하였다. 마태오 리치 수사가 탄 배는 다행히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배들은 범선이었으므로 심한 폭풍우를 만나면 그대로 침몰되었다.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출발하여 마카오까지 오는 동안 대다수가 해상에서 사망하였다. 그 예로서, 1618년 선교사 스물두 명이 유럽에서 출발하였는데 열네 명이 도중에서 죽고 마카오에 도착한 선교사는 여덟 명에 불과했으며, 1626년에 선교사 여섯 명이 유럽에서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네 명이 죽고 두 명만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1636년에는 선교사 아홉 명이 유럽에서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다섯 명이 사망하고 네 명만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1647년에는 선교사 열세 명이 유럽에서 출발하였는데, 마카오에 도착한 선교사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마태오 리치 수사 일행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닻을 내렸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인데 이곳에서 6주간 휴식을 취하면서 항해 도중에 마실 물과 식량을 실

었다. 8월에 다시 닻을 올려서 동쪽으로 계속 항해하여 9월 3일에 당시 인도의 수도 고아에 도착하였다. 선교사들은 반년 동안의 선상생활로 몸이 쇠약해져 요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 고아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항해하여 실론, 일본, 중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했다.

고아 성당 근처에 포르투갈 총독부가 있었다. 그 건너편에는 노예시장이 있어서 남녀 어린이까지 노예로 팔리고 있었다. 포르투갈인들은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이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며 학대를 하면서 부려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었다. 1510년 인도의 고아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자, 프란치스코회와 아우구스티노회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파견되어 선교를 하였다. 예수회는 1542년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를 교황 특사로 고아에 파견하여 동양의 여러 나라와 특히 일본에서 선교하게 하였는데,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하여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던 중에 광동성 대산현에 있는 상천도라는 섬에서 피로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해를 인도까지 모시고 와서 고아에 안장하였다.

마태오 리치 수사는 고아에 있는 바오로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신학생들에게 라틴어와 희랍어를 가르치는 교수를 겸하였다.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인 신학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1580년 7월 25일 마태오 리치 수사는 인도 남서부에 있는 항구도시 코친(Cochin)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프란체스코 빠시오(Francesco Pasio 중국명 巴範濟) 신부와

함께 고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1582년 8월 7일에 마카오에 도착했다. 유럽에서 함께 와서 먼저 마카오에 정착한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는 마태오 리치 신부와 프란체스코 빠시오 신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동양 순찰사 알렉산드로 발리냐노(Alexandro Valignano 중국명 範禮安) 신부도 일본 시찰을 끝내고 돌아와 있어서 만날 수 있었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선교사 마태오 리치 신부와 선교 행정 면에서 유능한 발리냐노 신부는 서로 호흡이 잘 맞았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기억력이 뛰어나게 좋아서 중국어를 배운지 불과 3개월 만에 3년 동안이나 중국어를 학습한 루지에리 신부와 비슷한 실력을 갖게 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인내심이 강하고 연구열이 대단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 풍속, 종교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루지에리 신부와 함께 1583년 9월 초에 마카오를 출발하여 9월 10일에 광동성 조경(肇慶)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천녕사(天寧寺) 부근에 성당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바로 그 옆쪽에는 조경 주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점차 천주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유럽에서 가져온 프리즘, 해시계, 성모 성화, 자명종, 지도 등을 전시하였다. 당시 중국은 아직 유리를 만들지 못해 건물의 창문에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유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포르투갈에서 7-8전에 불과한 유리 프리즘을 중국 사람들은 천상의 보옥처럼 생각하여 ‘무가지보(無價之寶)’라고 불렀다. 성모 마리아를 그린 유화를 본 중국인들은 그것을 산 사람인 줄 알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선(線) 중심의 동양화만 보던 중국인들에게 입체감 있게 그린 서양 성화는 상당한 경이감을 갖

게 하였다. 이러한 서양 물품 전시는 그 지역 관리들과 유지들, 그리고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데 흡인력이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전시품을 둘러본 사람들은 마태오 리치 신부를 세계적으로 위대한 천문가라고 칭찬하였다.

서양의 진귀한 물건과 하얀 피부에 푸른 눈의 두 서양 신부,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어 성당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낮에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석회와 청색 벽돌을 써서 유럽풍으로 지은 성당은 2층 양옥으로 1584년 12월에 완공하였는데 아담하고 예뻐다. 중국인들은 이 건물 또한 매우 신기하게 여겨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이 성당 건물은 중국 건축사에 남을 새로운 계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경의 최고관리인 지부(知府) 왕반이 '서래정토(西來淨土)' '선화사(儂花寺)' 라고 손수 쓴 편액 두 개를 선물했는데, '선화사' 라고 쓴 편액은 대문에 걸었고, '서래정토' 라고 쓴 것은 중당(中堂)에다 걸었다. 성당 안에 성모상을 모셔 놓았는데, 그 모습이 중국 민간 신앙에 나오는 삼신할머니 낭랑(娘娘)과 매우 비슷하게 닮아서 중국인들에게 낯설지 않고 친근감을 주었다고 한다. 성당에 걸어 놓은 큰 자명종도 많은 중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물시계를 사용해 왔으므로 자명종을 보고 몹시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서양화로 그린 세계지도도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경탄과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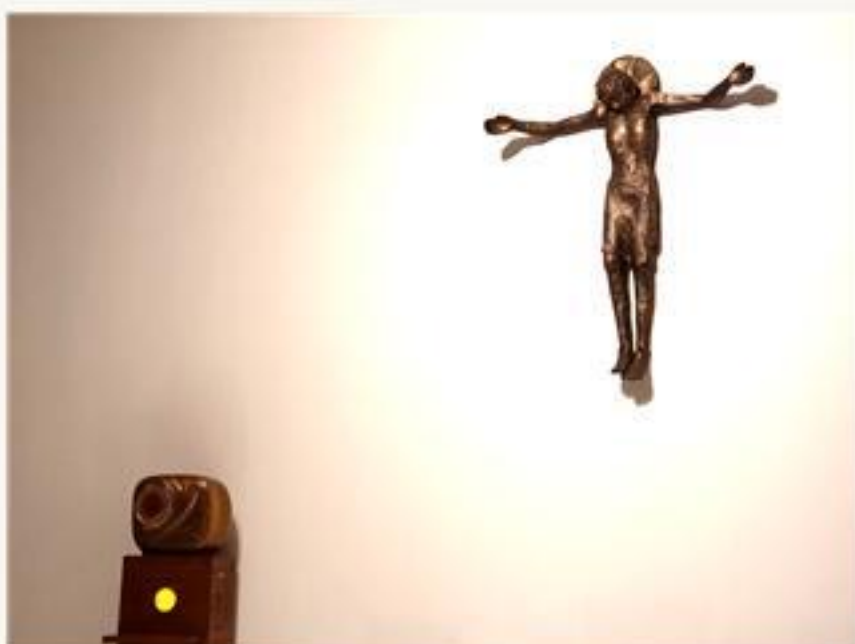
조경 성당이 위치한 곳은 상당히 이상적인 장소였다. 번잡한 시내에 있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매우 조용하며, 도적이 출몰하는 광야지대도 아니었다. 성당 부근에 큰 강인 서강(西江)이 흐

르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였다. 신부들이 해마다 두 차례 광주(廣州)에 가는데, 배를 타고 오가기에 편리하였다. 조경은 총독 소재지였는데, 중국인들이 총독을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천녕사와 성당이 가까이 있어서, 많은 관원들이 성당을 구경하러 왔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조경에 있는 동안 많은 중국 관원과 학자들을 접촉하였다. 조경에서 그는 천체를 관측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구의>와 <천구의>를 만들어서 중국 관리들에게 선물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유럽에서 가져온 세계지도를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응접실에 걸어 놓았다. 중국인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로 생각해 왔는데, 지도에 그려져 있는 유럽,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대륙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조경의 최고관리인 왕반이 마태오 리치 신부를 방문했다가 성당 응접실에 걸려 있는 세계지도를 보고는 마태오 리치 신부에게 지도를 그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1527~1598)의 <세계대지도>(1564)를 참고하여 한문으로 된 지도를 그렸는데, 이 지도를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라고 하였으며 1584년에 출판하였다. 왕반은 이렇게 출판된 <산해여지전도>를 대부분 사대부 친우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러나 이 지도들은 전부 유실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조경에서 이 <산해여지전도>를 이용하여 천주교를 선교하였다. 조경은 서양의 건축, 지도, 천문의, 악기, 회화 등 서양의 문물을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곳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성소 *



가르멜로(路) 74-55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만약에”

며칠 전 수사님들과의 공동 식사 중에 ‘로또 당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젯거리가 되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상금이 얼마라더라’,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상금 받아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로또 당첨과 관련한 여러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다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받은 상금으로 무얼 하고 싶은가?’ 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고, 수사님들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했다. ‘만약에...’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기에, 각자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생각해보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당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당첨될 확률이 엄청나게 적을 뿐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도자인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재물에 대한 소유 자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가난 서원을 발한 나에게... 로또 1등 당첨이라니! 결국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화제는 그냥 식사 중에 한 바탕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나누어 볼 수 있는 대화 주제였을 따름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질문 대신 ‘만약에... 내가 수도자의 길을 걷는다면?’ 이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실제로 수도자의 길을 걷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사실 수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내 미래의 인생 여정에는 ‘수

도자'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만약에' 라는 말이 담고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은 아예 0%였다고 하겠다. '만약에...' 로 시작하는 질문 자체를 아예 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0%였던 가능성이 놀랍게도 어느 순간 100%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이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저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택한 삶의 여정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삶의 여정은 불확실한 가능성이 지극한 현실이 되는 길이요, '우연' 같아 보이면서도 되돌아보면 '필연' 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길인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다 소중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길을 정말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겠다.



성 소문의 :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옹달샘 *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구세주)이심을 보여 주셨음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가 아니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의 한 부류가 ‘뉴 에이지’ 즉 ‘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성(神性)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기적’ 밖에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기적’ 은 당신의 부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일컬어 ‘부활 발현’ 이라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문을 열지 않으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유령이 아니고 너희 스승인 나다 ”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

접 본 ‘목적 증인’ 들입니다.

그 자리에 없던 토마 사도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 고 사도들이 말하자, “나는 그분의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드레 후에 토마 사도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 사도에게 “내 상처를 보고 만져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토마 사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되어 하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10)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하느님 자비의 사도 파우스티나 성녀

우리의 다음 순례지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자비의 성모 수녀원'이다. 아우슈비츠에서 1시간 30분 정도 버스로 이동하면 닿는 거리. 폴란드, 많은 기적과 성인과 아픔이 있는 땅.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땅.

버스에서 내린 후 한참을 걸어 들어가, 제일 먼저 마주친 '하느님 자비의 바실리크'.

이 바실리크는 두 개의 모관(zucchetto) 모형으로 한쪽은 넓게, 한쪽은 모관(毛冠)을 위로 쪽 올린 형태로 지었다고 한다. 크라코프 출신이자 같은 크라코프 출신인 자비의 사도 파우스티나 성녀를 2000년 희년에 성인품에 올린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기념하는 의미가 깊다고 한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2002년에 이 바실리크를 직접 축성했다.



두 개의 모관 모양의 바실리크

파우스티나 성녀가 일기 형식으로 쓴 '자비는 나의 사명'을 읽다 보면 사모 데레사 성녀가 아끼고 의지했던 성 바르톨로메오의 안나 복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도 연관이 없는데 두 분이 함께 겹쳐지는 이유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두 분 성녀를 당신의 피난처로 여기시고 친구처럼 대하셨기 때문일 것 같다.

“또 한 번은 아빌라 성 요셉 수녀원에서 지내던 성주간 수요일에, 주님께서 수난 중에 받으신 참혹한 고통을 생각하며 잠심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잡으려 하기 때문에 도망쳐 친구 집 대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처럼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가 당신을 잡으려 하는가 보려고 돌아서는 사람처럼 극도로 괴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서 '주님 당신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 제 마음이 있사오니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고통을 본 내 마음에 슬픔만 가득 채워 놓고 떠나가셨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복녀 안나 자서전」 p76-77)

“저녁 기도 중에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네 마음속에서 쉬고 싶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죽

도록 슬픈 체험을 했다.’ ” (파우스티나 성녀의 「자비는 나의 사명」 p453, 아베마리아 출판사)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 제의 가슴 쪽에 자비의 예수님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 작은 경당에서의 미사를 마치고 우리는 성녀의 유해가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곳 성당은 미사 중이어서, 성당 입구 계단에 앉아 수녀원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20세기의 한 성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자비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것과 이 시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발현이 가장 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시대와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 자비의 두 줄기 빛이 그려진 배경이 되는 예수님 발현의 순간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의 첫 발현은 1931년, 폴란드가 오랜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위치를 굳히는 시기이자 국제적으로는 2차 대전의 불안한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던 때였다. 앞으로 있을 광풍에 앞서 발현하셔서 당신의 자비를 선포하시고 그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다. 이 하느님 자비의 선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인류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이셨을 것이다.

1931년 2월 22일.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사명인 하느님 자비의 상에 대한 첫 계시를 받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친구요, 비서요, 자비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었다.

저녁에 내 침실에서 나는 흰 옷을 입은 주님을 보았다. 한 손은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은 축복을 하시려는 듯 들고 계셨다. 가슴에서는 두 줄기의 빛이 비취 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또 하나는 엷은 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큰 기쁨에 넘쳤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본 대로 상을 그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상이 먼저 네가 있는 성당에서 공경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든 역시 공경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 상을 공경하는 이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특히 임종 때에 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 상을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고해 신부에게 이를 전했을 때 그는 이를 믿지 못하였다. 고해실에서 나올 때 다시 말씀이 들렸다.

“ ‘네 영혼 속에는 이미 내 상이 들어 있다. 나는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붓으로 그린 내 상이 부활 첫 주일에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될 것이다.’ ”

하느님께서서는 ‘심판의 날에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너에게 달려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비는 나의 사명」 p61-62, 아베마리아 출판사)

영적 지도 신부의 요청에 따라, 파우스티나 수녀는 주님께 성화에 나타난 빛의 의미를 물었다.

“두 빛줄기는 피와 물을 상징한다. 빛이 엷은 빛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

을 가리키고, 붉은 빛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가리킨다. … 이 두 빛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으로 내 심장을 열었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부활 첫 주일의 전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일기 형식의 글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었다. 생애 마지막 4년간의 기록으로서 하느님과 성녀 영혼의 만남에 대한 글이다.

“침묵은 아주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어좌에까지 도달한다. 침묵은 비밀스럽지만, 살아있고 강력한 하느님의 언어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여왕과 같아 노예와 같은 강박 대신에 모든 것을 크나큰 영혼의 자유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랑이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오! 거룩한 미사 시간에 얼마나 무섭도록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쉬시는 아주 작고 조용한 방이 되고 싶다.”



크라코프 광장과 '성모 마리아 대성당'

“만일 주님께서 숨으신다고 해도 사랑이 그분을 찾아낼 것이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글에서 사모 데레사 성녀와 성삼의 엘리사벳 성녀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이유는 성녀 또한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도로서 이미 신비가 대열에 합류한 성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작은 꽃, 수녀로 받아들이기에도, 세속의 척도로도 부족하게만 보였던 성녀,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다가, 1925년 20세에 어렵게 수녀원에 입회를 했다. 많은 고통을 겪다가 1938년 33세에 하느님 품으로 떠난다.

우리는 미사가 끝난 성당 내부에 들어가 성녀의 유해가 모셔진 제단에서 잠시 머무르다 다음 행선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크라코프 광장에서

아우슈비츠, '자비의 성모 수녀원'을 거쳐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로 오후 늦게서야 도착한 곳은 크라코프 구시가 광장. 이곳은 중세 유럽 도시 중 2번째로 큰 광장이라고 한다.

“1000년의 고도이지요. 바벨 성에서 구시가 쪽까지를 로얄 루트라고 합니다. 이곳을 폴란드의 '로마' 라고도 할 수 있지요.”

크라코프 광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첨탑을 지닌 '성모 마리아 대성당'은 엄청난 규모의 제대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공사 중인 관계로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하니 아쉽기만 했다.

크라코프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이곳이 크라코프 교구장이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도 이 교구에 속한다.

1348년, 흑사병의 원인지목을 겪은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가면 산다.' 라는 마음으로 모여 와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이 600년 뒤 유대인 최대의 학살지가 되어버린 곳.

“왜 이곳에 유대인 최대 학살지를 만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이곳이 동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카를 보이티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유대인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폴란드에 유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1948년 시온주의의 주축은 폴란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아! 여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적지가 우리 눈앞에 있군요. 맥도날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갑자기 말할 기회를 얻은 회원들이 즐겁게 한목소리로 외친다.

관광객을 싣고 1000년 고도의 광장을 누비고 다니는, 여러 대의 마차에서 나는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우리를 중세 유럽의 어느 골목으로 끌어들인다.

30분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짧은 시간, 낮은 공간에 얽혀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고도에 날아든 하루살이 같다. 수많은 인파가 일렁이는 물결처럼 흘러가고 흘러 들어온다.

지금은 관광 상품 일색인, 과거에는 직물 공장이었다는 시장 건물 입구에는 거리의 악사가 있다. 서 있는 남성이 부는 악기는



크라코프 광장의 악사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인 백파이프와 소리나 모양이 비슷하고 앉아서 연주하는 여성은 커다란 큰북으로 거기에 화음을 맞춘다. 남성의 전통 악기가 내는 서정적인 음색과, 여성이 연주하는 건조한 느낌이면서도 사람의 심장 두근거림에 가깝다는 북소리의 화음이 해 저무는 넓은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픽업픽업 서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색 바랜 공기가 서늘하게 대기를 스치고 지나간다. 우리는 모두 작고 여린 존재인 채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감상적인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백파이프를 닮은 악기 소리 때문인가.

크라코프 국제공항은 '요한 바오로 2세 공항'으로 개칭되었다. 1979년 1차 방문부터 모두 8번의 방문을 한 성인은 2000년 파우스티나 수녀를 성인품에 올렸다. 성인은 교황으로 선출되기 일 년 전 이미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바티칸에 요구하셨다.

“교황님의 고향은 아우슈비츠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교황님의 첫 방문이 있던 해, 공산 정권은 교황님의 폴란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교황님을 반기기 위한 준비를 하

는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론 탄압은 시작되지요. 교황님을 환영하기 위해 길목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교황님이 지나간 자리에 장미를 뿌립니다. 그러면 공산정권은 곧바로 탱크를 몰아 그 꽃을 전부 밟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국민에게 움트는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교황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 명단을 조사하려 했으나, 전 국민이 몰려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폴란드를 방문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연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00년 심오한 폴란드인 역사를 풀어가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여! 강림하소서. 이 새롭게 태어나는 폴란드에게, 성령이여! 강림하십시오.”

이렇게 교황님은 폴란드인에게 화합과 단결을 외칩니다.

폴란드인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가신 후부터 폴란드에는 민주화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민주화의 선봉인 ‘자유노조’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심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바웬사입니다. 이후 폴란드는 10년간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되지요. 82년에는 계

엄령이 선포되고, 많은 민주화 인사가 투옥되고, 목숨을 잃고 암살을 당합니다. 2년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때에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당서기인 야루젤스키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를 자주 합니다. 단 한 차례도 항의하거나 부탁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감동을 하였고 드디어 89년 국민투표에 붙여져 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폴란드가 키워낸 성인 요한 바오로 2세와 또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진정한 가톨릭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폴란드. 나라가 한 성인을 키워내고 또 그 나라가 키워낸 성인이 가톨릭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나가고 하느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 한 가운데로 오셔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

가이드 형제님은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 방문으로 취소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생가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많은 설명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 공동체 이야기 *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대전 아기에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야외 월모임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대전 가르멜 수녀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40주년 창립 기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립 40주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 대전 아기에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는 1982년 2월 12일 전국 36개 공동체 중 3번째로 창립된 공동체입니다. 현재 단독회원 10명, 지속기 회원 57명, 피양성 회원 25명, 총 인원 92명으로, 대전시 동구 용전동 산자락에 위치한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서 시작하여 대전 지역에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수도원 주변은 인적이 드문 산악지로 버스에서 내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수도원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이 얼마나 습한지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

려웠다고 합니다.

초대 회원들의 성소는 무에서 유를 이루어 내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몇몇 창립 회원들의 회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창립 회원들은 수도원에 제병을 사러 다니거나 수녀님들이 엮어 주시는 묵주를 본당에 판매하며 본당과 수도원에서 봉사하거나 기도를 청하러 다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1981년 8월 어느 날 원장 수녀님께서 봉사자 6명을 수녀원으로 오라고 하여 가르멜 신부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재속회를 창설하고자 하는데 외국에 갔다 내년엔 오니 수녀님들에게 재속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창립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원장수녀님께 가르멜 영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982년 1월 신부님

께서 대전 수녀원에 오셨고 그동안 주변에 권유하여 11명이 모였습니다.

1982년 2월 12일 정대식 플로리아노 신부님 주례로 11명의 회원과 함께 대전 재속회 창립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가르멜을 향한 열정과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보살핌으로 이듬해에 회원이 3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보호와 신부님들의 보살핌과 곁에 계신 수녀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듬뿍 받으며 가르멜 영성을 익히고 실천하는 회원들의 삶을 보고 많은 신자들이 입회를 하였습니다. 회원의 증가로 월모임과 양성, 나눔등의 장소를 고려하여 2001년 11월 13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를 분리하여 창립하였고, 2013년 11월 23일 십자가 성 요한 공동체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양성 없이 신부님께서 월모임 날 미사와 양성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월모임을 하던 장소는 수녀원 공청으로 10여 평 남짓하였는데 여건이 아주 열악하였습니다. 신부님 강의를 듣고자 공청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으면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습하였고 벽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르멜 영성에 취한 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동체 모임을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증가하며 공청을 20여 평으로 증축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고 방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증축한 공청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동체의 월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은 온돌 바닥에 앉아서 단계별 양성, 묵상 기도, 나눔 등 모든 모임을 하고 뻥뻥하게 앉아 신부님 강의를 듣노라면 강의하시는 신부님께서 안쓰러워 더욱 열강을

해주시곤 하였습니다.

“아이구 허리아 ” “다리가 저려오네 ”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얼굴을 맞대고 공동체 모임을 하노라면 정이 새록새록 돌아오고 푸근하게 쌓여가니 공동체를 위한 열정이 넘쳐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임을 늘 깨닫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회원들 간의 친교와 공동체를 위함과 사랑이 남다르다는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종신서약 미사를 가족과 내빈이 함께 드리고 축하행사를 하며 기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축하식이 끝나면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수녀원 면담실 문이 열리고 수녀님들이 모두 나와 종신서약자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수녀원 면담실은 협소하여 종신서약 회원과 가족들, 청원기와 수련기 회원들이 안으로 들어가 앉고 나머지 회원들은 문 밖에 서서 수녀님의 축하 말씀과 축하 노래와 율동을 보며, “여기가 지상의 천국이구나. 가르멜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40년 동안 13번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2번의 임시총회를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은 모든 회원이 침묵 중에 기도하며 기다리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두 번의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에게 설거지 영성과 며느리 영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화목하고 열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흥길 예수의 헬레나님이 초대 회장으로

로 선출되어 1년 동안 봉사하고, 교구 교도소 봉사 소임을 맡게 되어 가르멜 회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재화 켈마에게 임시회장을 맡으라고 하여 “저는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신부님께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려 하는데 거절을 하다니.... 하느님께서 켈마 회장님을 큰 붓으로 쓰시려는지 작은 붓으로 쓰시려는지 알 수 없지만, 붓만은 꺾지 말라 하시며 순명하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부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순명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창립된 지 28년 되는 2010년에 초창기 회원 세 분이 서약 25주년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모시고 은경축 미사와 축하식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에 세 분, 2019년에 세 분, 2021년에 네 분의 은경축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초창기부터 가르멜 영성을 싹틔우고 가꾸며 하느님 사랑을 가정과 이웃에 증거하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해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분들의 삶을 보고 입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월모임과 구역모임을 주말에 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섯 분이 지원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재속회원들의 삶의 표양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표양으로 지원자를 부르시는 것 같아 더욱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답니다. 피양성자들은 선배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양성과 공동체 생활을 익히며 직장과 사회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의 보물입니다.

남성회원 11명으로 1구역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성구역 회원들은 공동체 행사에 무거운 것을 들거나 주차 정리를 하거나

전날부터 행사장 준비를 하는 등 공동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년 회기마다 피양성자 수도원 체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수사님들과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신부님께 면담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묵상하며 자신의 성소와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일대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원 체험 후 고성 수녀원을 방문하여 수녀님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성소와 재속회 입회 후 생활에 대해 발표할 때 한 회원이 “저는 산을 아주 좋아하여 등산모임에 들려고 했는데, 후보에 ‘가르멜산 등반에 오를 회원을 모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전화를 하였더니 ‘뜻이 있으면 12월 17일 오전 9시까지 용전동에 위치한 대전 가르멜 수녀원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여 빨간 등산복장을 하고, 등산지팡이를 들고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방에 갈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가르멜산에 출발하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등산모임이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등산을 망친 것이지요.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후부터 그날이 자꾸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후 12월에 재속회에 입회를 하여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께서는 크게 웃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은 참 오묘하십니다” 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수녀님들 앞에서 재롱 잔치를 하며 수녀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수녀님들께로부터 많은 영적 보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전에는 세 재속회가 있습니다. 세 재속회가 서로 도와 피정, 교육 등 행사를

함께하고 있어 서로 인사도하고, 친교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김영문 브루노 협조신부님 지도로 함께 종신서약 예정자 피정과 단순서약 예정자 피정을 하였습니다. 대전교구 새 사제 수녀원 첫 미사 때에도 세 재속회가 돌아가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 사제 아홉 분이 수녀원에서 첫미사를 하였습니다. 참사들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아침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새 신부님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가르멜 재속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들께 재속회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박 에우세비오 협조신부님께서 언젠가는 재속회관 건립이 필요하니 건축기금을 조금씩 모아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하시어 세 재속회 참사회의를 하여 기도문을 작성하여 성무일도 후 기도하며 건축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재속회관 건립금을 신립하여 재속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모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재속회관 건립을 준비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많아 구역모임과 심화양성을 토요일에 시행하기에 본당에서 모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수녀원 인근에 원룸을 얻어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구역모임과 양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과 성모님의 보호로 월모임과 구역모임, 단계별 양성을 빠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모임, 기도 활동 등의 제약으로 느슨해진 우리의 영성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동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회개하고 굳은 결심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정겹게 다가가기 위해 공동체 목표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① 모든 회원이 매일 영적일기를 쓴다. ② 사부님, 사모님의 서적과 공동체 주보성인이신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서적을 통독한다. ③ 매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④ 공동체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④ 가르멜 영성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한다”로 정하여 모든 회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주보로 모시는 저희 공동체는 가르멜산의 동정 마리아의 보호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은경축 기념

* 가르멜 프락 *

등에게

반숙자 (성 요셉의 벨라뎃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단 한 번도 살갑게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고 제 몸이면서 남같이 살았습니다. 힘든 것은 다 말기고 두 팔 휘이휘이 저으면서 콧노래 부르며 살았습니다.

등짐에 허물 벗고 굳은살 배겨나도 등이니까 그러려니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어찌다가 가렵다고 징징대면 효자손 시켜서 긁어 주고 등이라서 손이 안 닿는다고 제쳐 두었지요. 다른 지체가 탈이 나면 엄살 부리고 벌벌 떨며 침이다 주사다 공양하며 애면글면했습니다. 가파른 세월 굵이굵이 걷다 보니 참나무 등걸처럼 굵어지고 쇠잔해졌습니다. 오척 단구 버터주고 오장육부 감싸줘도 고마움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나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직장에 매여 자신의 희망 사항은 모두 접었습니다. 고단해도 고단하다 말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로운 맘 내색하지 않고 삽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들을 대표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 성인입니다.

나는 그분이 좋습니다. 마리아의 배필이시고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기에 그 품이 얼마나 넓고 깊으신 줄 가늠이나 하라 마는 그옥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성 요셉께 마음이 닿아 기도를 시작한 것은 어언 수십 년이 됩니다. 서른아홉 되던 성 요셉 성월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한이 나서 이불을 쓰고 누우면 얼마 못 가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맙니다.

음식이 받지 않고 하루 몇 차례 오는 오한으로 기진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병원과 한의원을 다 찾아가 보아도 병명은커녕 치료조차 받지 못했지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절망으로 변해갈 때 기도서를 찾아들었습니다.

영세한 지 20년 세월에서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이시오,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청하오니,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라는 기도문을 따라 하다가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시라는 데서 붙들렸습니다. 이왕 죽을 거면 고통 없이 회한 없이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기에는 젊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시소를 태웠습니다.

살려주시라는 탄원으로 성 요셉 구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죽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탈을 부리다가 서울 을지병원에서 담석증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성 요셉의 간구로 살아났다는 확신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고 염치없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요셉 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을 할 때 힘에 부치면 노동자의 수호자이신 요셉께 매달리며 노동의 보람을 얻으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충주 가르멜 재속회를 찾아갔

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의 첫인상에서 성 요셉의 그림자를 만난 듯싶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듯이, 알아도 모르는 듯이 침묵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세상살이에서 느끼지 못하던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요셉 아버지도 침묵의 달인이 아니시던가요? 사실 요셉 성인은 성경에도 자주 안 나오는 분이죠. 평생을 목수로 사신 것도, 예수님 탄생 때의 역할이며 예수님과 같이 30년 세월이 묻혀버린 분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요셉 성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대세를 받을 때도 후보 성인으로 정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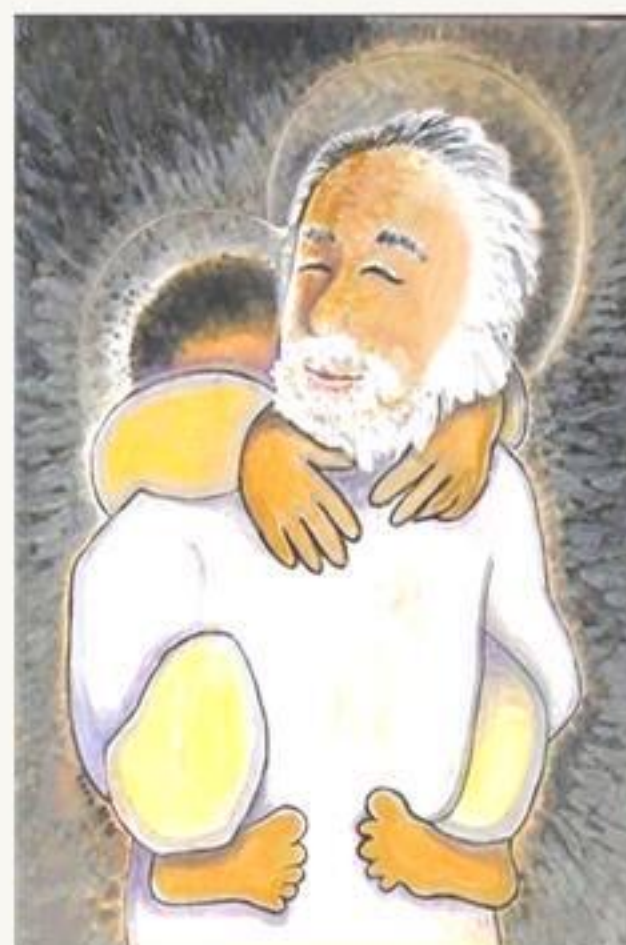
가끔 기도 중에 요셉님의 목공소를 기웃거리기도 하지요. 요셉님은 원체 말이 없으신지 빙긋이 웃으시고는 대패질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부름을 나갔는지 안보이고 성모님은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성가정의 모습은 조출하고 아늑하고 평화롭습니다. 앉아만 있다 일어서도 등짐이 가벼워지는 목공소는 요셉님의 지밀 공간, 나그네는 가난한 그곳에서 보살핌과 자비로우심으로 채워져 시름을 달립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을 닮고 싶습니다. 일생을 조용한 헌신으로 사시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예수님 품에서 임종을 맞으시는 축복도 부럽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스스로 땀 흘려 먹고사는 노동자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정직하고 우직하고 의로우시니까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리라고 다잡는 마음, 천사의 말에 따르기까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일등 보호자로 살아내신 의롭고 자비로움.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그래서 교회는 1870년 12월 8일 교황청

전례성서의 교령에서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 大 성 요셉”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성 요셉은 우리 교회의 너른 등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업어 기르신 너른 등에 인류의 아픔을 지고 오늘도 묵묵히 간구하시는 요셉님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1년을 성요셉의 해로 지정하셨습니다. 2021년은 요셉 성인이 전 세계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된 15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온몸으로 사랑하신 성 요셉께 저의 가난한 사랑을 드리며 그 등에 엮디어 노래합니다. 불쌍한 이의 위안이신 성 요셉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의로우신 성 요셉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가르멜 프락 *

'심층의 시 한 편'

눈 녹은 자리마다 설강화 피어나고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속하게 그대로

편지를 부칠가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운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정음사, 1955)

밤새 내린 비가 오늘도 종일 내립니다. 자꾸만 잠이 밀려옵니다. 비몽사몽 알 수 없는 처소에 당도하여 원고지가 곁들여 있는 책을 한 아름 선물로 고르는 꿈을 꾸니다. 잠들기 전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영인본과 시인의 육필원고를 읽은 까닭인가 봅니다. 비 오는 날엔 책을 엮었다는 옛 선비,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를 만납

니다. 시리고도 아린 슬픔의 빗소리에 마치 가압장의 달린 공간처럼 날은 어둑합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가 떠난 후쿠오카의 감방처럼 깊은 우물 속 어둠에 갇혀 버렸답니다. 작은 창으로 쏟아지는 빛 내림에 감았던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마주합니다. 시인의 언덕에는 구절초가 갈바람에 흔들리고 붉은 팔배나무 열매는 곱기도 했지요.

낮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자하문 언덕의 하얀 집 <운동주 문학관>은 별뚱별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인왕산과 북악산의 수려한 산세에 안긴 시인의 언덕, 성곽 돌담 사이로 하늘이 내려오고 풀숲에 숨어있던 잔별의 이야기는 해지는 줄 몰랐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슬프고도 맑은 시향은 백 년의 세월 저편에서 잉태되었음을 파아란 바람(자화상)의 노래가 가만히 알려주는 날이었답니다. 어느 날,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별뚱별은 사막의 빈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던 산타크루즈의 모래바람에 휩싸이기도 산토스의 짙은 안개 속 낭떠러지 외길을 걷던 날도 있었지요. 추운 날에 산과 언덕은 초록 옷을 입고, 땡볕 아래 누런 벼갯을 입은 나성의 대지는 바싹 마른 속살을 베이는 아픔이었습니다. 미지의 타국에서 타국으로 디아스포라의 이방인이 된 내 생의 절반은 설국(雪國)을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먼 길 돌아와 고향의 눈 내리는 창가에서 아버지가 정성으로 가꾸시던 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와요.” 아버지와 마지막 바라보던 눈 내리는 그 겨울이 떠오르면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마키아토(macchiato)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 즐기시던 커피 한 잔이 무슨 해가 된다고 금했는지 야속기만 합니다. 거목의 생가지가 푹푹 부러지고 온 천지에 하얗게 춘설이 내리던 날에 아버지는 천상으로 길 떠나셨지요. 내 마음에 신열이 오르면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눈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눈이 서러워 캔버스 가득 눈송이를 그립니다. 인적 없는 눈길을 홀로 걷습니다. 호젓한 산모퉁이에서 ‘누나!’ 그가 부릅니다. 나는 그의 누이가 되고 그는 나의 아우가 되었습니다. 비록 강보에 싸여 울음을 터뜨린 나의 겨울보다 먼저 오셨으나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는 신비로운 인연입니다. 이제 나는 천지간에 홀로 유배당한 수인이 아닙니다.

사방 고요한데 이따금 낙수 소리만 들립니다. 흰 봉투에 담긴 눈은 긴 세월 기다림에 녹아내려 빗줄기가 되었나 봅니다. 겨울 아이로 태어나 겨울에 쓴 편지를 남겨 두고 떠난 해환 아우의 처연한 설움을 위로코자 곡배(哭拜)로 분향을 올립니다. 설국에서 한 줌 눈을 넣어 부친 편지는 속진에 찌든 내 영혼을 조차케 하여 맘디맘은 고드름으로 정화시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던 설야, 잃어버렸던 방년의 순수와 기쁨을 다시 만납니다. 적요만이 감도는 깊은 밤에 사락사락 눈이 내리면 온 누리는 평안히 잠을 청합니다. 그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도 삼백예순날(눈 오는 지도) 하냥 눈이 내리고, 순백의 설원엔 눈 녹은 발자국 자리마다 설강화(雪降花,

Snowdrop)가 피어납니다. 순결한 눈꽃이 고개 숙인 눈밭에서 소복의 눈사람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등잔불을 밝히고 우리의 모국어로 써 내려간 아우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내 영혼에 하얗게 내리는 사연이 심층에 쌓입니다.

누나!

눈을 한 줌 넣어
편지를 부칠까요?



* 가르멜 프락 *

그리움의 주머니(1)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박태준 작곡, 이은상 작시의 "동무 생각"은 작곡가 선생님의 짝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바리톤 황병덕님과 메조소프라노 백남옥님이 즐겨 부르는, 동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린 격조 높은 노래이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의 그리움이 있듯이 내 그리움의 실체에는 언제나 계산동 가르멜 수도원의 언덕이 야트막하니 자리한다.

인천 계양산등성이에 어느 은인께서 희사하신 아주 넓은 부지에 1976년경에 지어진 인천 가르멜 수도원. 초창기 우리 선배 어른들께서는 서울에는 회관이 없어서 인천 수도원까지 다니셨으니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월모임에 참석하셨다한다. 또 그 계산동 골목에는 가르멜 수도원, 가르멜 전교 수녀원, 노틀담 수녀원, 마리아니스트의 4개의 수도원이 교묘의 기도 속에 잠겨 있다.

미사 전, 하루의 시작을 수도원 소성당에서 성무일도로 시작한다. 수사님, 신부님들과 함께. 소성당 바닥은 마루로 모두가 신을 벗고 올라선다. 한겨울 우리는 따뜻하게 입고 신었지만 장례를 아래로 보이는

양말 중에는 발바닥이 남아서 헤어지게 생긴 양말도 있었다. 춥게 지내시는 수사 신부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내 식구 같았던 나는 양말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넣어 드렸건만 내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아무도 신지 않으셨다. 모자람 속, 부족한 곳으로 보내시는 나눔의 풍요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품위 높고 깊으신 주님의 목자들...

깊은 겨울 아마도 2월경 딱 하루 이틀, 잠깐 동안 수도원 성당 건너편 하늘을 아름답게 불태우는 새벽노을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2월 그때쯤이 되면 눈부신 파노라마의 색채들은 나를 그곳, 하느님 천지창조의 위엄으로 가득 찬 하늘로 불러들인다.

조금 일찍 도착한 형님 어른들과 수도원 뜰에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눈다. 새로 오신 김형신 이냐시오신부님께서 가냘프고 영리하신 모습이 꼭 소년 다윗과 같다 하여 형님들은 안성맞춤으로 별명을 지어 드렸다. "다윗신부님".

박병해 스테파노 신부님, 박태용 요한신부님, 박현찬 에우세비오 신부님, 이종욱 안셀모 신부님, 정순택 베드로 신부님, 이돈희 보니파시오 신부님,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님, 안토니오 수사님, 안드레아 수사님 등은 아마도 그곳에서 거주하셨을까, 자주 뵈었고 권영상 클라멘스 신부님은 조금 늦게 입회하셨고 김광서 토마스아퀴나스 신부님, 장 석훈 베르나르도 신부님, 조운용 엘리야신부님, 이석재 비안네 신부님, 서봉

규 예로니모 신부님,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님, 강유수 마리오한 신부님 등 많은 신부님들께서 모이실 때의 계산동 수도원의 제대 위에는 신부님, 수사님들로 꼭 차게 병풍을 두르고 거룩하고 엄숙한 미사를 봉헌하곤 했다. 미사 끝에는 베드로 신부님, 보니파시오 신부님께서 주로 고백성사를 주셨고 울림 있는 상담도 해주셨다.

집 가까운 곳에 새벽미사가 있는 곳을 찾다가 참석하게 된 가르멜은 갈색으로 대답하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계속 미사에 참여하게 되니 에우세비오 신부님께서 “저쪽에 앉아서 미사 하는 자매, 재속회에 입회하시지요.”하며 권하셨지만 나는 그 신비로움이 두렵고, 정결한 질서가 조심스러워 엄두가 안 났다. 그 말씀에 힘입어 얼마 후에 나는 효임골롬바의 도움으로 입회하는 은총을 받는다. 허숙자 아가다 회장님, 알로에농장을 하시었고 총총히 주님 곁으로 가신 홍승효 마르타 구역장님, 임영순 안나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엄청 열심히 신부님 어머니이신 정정순 데레사님 등 가톨릭 특유의 냉랭한 면도 있었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냉담함을 덜었고 또한 이복희 쟈마님은 월모임의 신부님 강론 말씀을 정리하고 엮어서 강당 가득한 회원님께 나누어드렸다.

지난 2006년에는 삼위일체의 복녀 엘리사벳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분의 영성을 기리는 행사를 계양문화회관에서 거행했다. 그리고 2009.10.18 한국 가르멜 수도회 관구 승격 기념미사를. 2010년 4월 18일에는 창립 멤버이신 박병해 스테파노신부님 금경축미사와 축하식을 관구장님이셨던 김영문 브루노 신부님께서 집전하셨다.

이 세 번의 큰 행사 중에 두 번은 참석을 하였는데 오래도록 생각나는 기억이 하

나 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중간중간 진갈색 옷을 입고 승차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 보나 마나 우리 회원들이셨으니 함께 하던 형님들과 동지적인 기쁨으로 우리만의 옷이 너무도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그 당시 이렇게 진갈색 옷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랑은 유별났으니 월모임과 구역모임 때 짙은 갈색의 한복을 입으신 회원님들도 있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른 색의 옷을 입으면 선배 형님들께서는 한마디씩 하셨다. 짙은 갈색 옷을 입고 성모님 상 옆 쪽문으로 들어오시는 마르타 구역장님은 인품도 좋으셨으니 나도 그 옷을 입으면 덩달아 좋은 성격으로 바뀔 것 같은 부러움도 입회하는 데에 일조를 했을 듯하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또 있으니 하루 세 번 삼종기도 종소리에 함께 소리 높여 짓어대는 덩치 큰 지키미 베드로. 짐승들은 기계음의 종소리가 거슬려서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도 어깨너머 배워서 기도한다며 소곤거렸다. 스쳐가던 바람소리,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까지도 그리운 내 맘의 고향 가르멜 인천수도원!!! *



*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애들아, 귀한 얼굴 가리지 말거라!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자아인식. 묵상 기도 안에서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 일치를 이루며,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화하는 여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든 힘든 영역인 듯하다. 누군가에게 내 생김 대로의 알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하다. 더구나 하느님 앞에서라면 더 그럴 터다. 그래서 말인데... 어찌면 우린 그게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두렁이를 걸치고 하느님을 만나는지도 모른다. 나를 지켜주는 갑옷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듯이 말이다.

알몸만 가릴까? 하느님의 그윽한 눈길 아래 머물며, 그분을 바라보는 절대 순수의 시간. 하느님의 빛으로 온통 물들인 아름다운 얼굴까지 가린다. 그때 필요한 도구는 가면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또 내 존재 자체로는 도저히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열등감과 고립감. 그래서 맨얼굴을 가려보는 거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세운 기대만큼 살지 못했던 하루, 영적인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니 그마나 덜 부끄럽다.

영혼의 성 4궁방에 자기 영혼을 올려놓고 만족하다가 1궁방에서 맴도는 것을 봤을 때, 실망과 낙담이 따른다. 가르멜의 수준 높은 영성과 기도가 과하게 이상화되어 나의 본성과 멀어질수록 그 괴리감은 죄책감으로 드러난다. 이럴 때도 가면은 자기가 세운 이상이 내면의 현실인 양 착각하게 해준다. 하지만 피조물의 불완전성

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극복될 수 있기에,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성을 찾아가는 길은 인간 이성을 초월하여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합일의 길이다.

가면은 진정한 자신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에트루리아의 어릿광대들이 쓰던 가면을 뜻한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말이다. 그는 사회가 원하는 덕목을 자신의 본성 위에 덧씌우는 사회적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했다. 그 덕분에 개인은 자신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자아이므로, 자신의 본성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갈등을 겪게 된다. 슈퍼맨처럼 팽창시켜버린 자기 모습에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기실현, 곧 참 자아의 회복인 것이다.

최고의 가면을 쓴 이들은 바로 배우들이다. 드라마나 연극, 영화에 등장하는 연기자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배역이 자기인 양 연구하고 몰입한다. 그 역에 깊이 빠질수록 극 속에서 완벽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치 그 배우가 실제 그 사람인 줄 알고 동일시하면서 자기 맘대로 기대하고 허상을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벗어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 배신감에 악성 댓글을 달며 상처를 준다. 하

지만 배우들은 자기가 사용한 가면과 페르소나가 경험을 쌓는 필모그래피가 되어 주므로 자부심으로 기억될 터다.

어느 배우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남긴 말이 있다. “죽음을 앞두고 준비를 거의 다 했다. 더 이상 미련도 없다. 다만 연기를 더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프다.” 또 어떤 이들은 배우의 장점을 이렇게 꼽기도 한다. 내가 살아 보지 못한 다양한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경험이 의미 있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궁금해서, “배우로서 당신은, 타인의 삶이 아닌, 자기 삶을 연기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라고 묻고 싶었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역시 인생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가면을 써 온 배우들이 아닐까? 아니 장롱에 숨겨놓은 가면이 몇 개냐고 묻는 게 옳을까?

가르멜인의 영적인 삶. 다른 신앙인과는 다르게 살아보기 위해 결단을 한 사람들이다. 자아인식.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데레사 사모님과 십자가의 요한 사부님, 그리고 가르멜의 성인들이 걸어가신 참된 길, 나로서가 아닌,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참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로 살아온 삶의 뒤안길에서, 원래의 본성을 향해 나아가는 참 정화와 회복의 길. 그 안에서 진실되게 만나 뵈는 하느님과의 합일!

그 여정에서 내가 살기 위해 애용했던 가면은 뭔지, 그것이 나의 나다움을 어떻게 왜곡시켜왔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이제는 하느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모습, 내 생김 대로의 본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이신 하느님을 만나 진솔한 사랑을 나눌 일이다. 여기서 존재란,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며 나를 부풀려왔던 행위적 페르소나가 아닌, 그 어떤 옷도 걸

치지 않은 알몸의 나, 철저한 민낯을 의미한다. 하지만, 죄짓고 못나고 비참해진 나의 내면을 직면하는 것이 어디 쉬워야 말이지.

7년 전, 어느 봉쇄 수도회 수녀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자아와 직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삶에서, ‘수도생활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었다. 모든 사람의 성소는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이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고유한 삶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거라고 했다. 잔인할 만큼 진실한 자기 인식과 성찰이 참 행복의 길로 입문하는 문턱이라면, 그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다시 물었다.

“가짜의 나를 벗어나야 해요. 처음 수도생활 시작할 때였어요. 묵상 중에 싱싱한 사과와 시든 사과를 보여주셨죠. 싱싱한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시든 사과를 먹겠노라 했어요. 집에서도 저는 늘 괜찮은 딸, 좋은 언니, 쓸모 있는 동생이었으니까 그런 양보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엔 싱싱한 사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욕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몇 년을 더 살고 나니, 싱싱한 것과 시든 것 다 나 혼자 먹어치울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이 뻥 뚫리게 깨달았어요. 진짜의 나를 본 거죠. 인간은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찾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면 타인을 향하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수녀님은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것은, 그곳에 사랑이 있고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불완전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

느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폴레도 감옥에서 자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아인식을 하며, 자신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본성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떠올랐었다.

수도생활 초창기에 수녀님이 썼던 가면은, 괜찮은 딸, 좋은 언니, 쓸모 있는 동생이었다. 가짜의 자기를 벗고 나니, '나도 좀 싱싱한 사과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떼를 쓰는 본성이 드러나면서, 심지어 사과 두 개를 다 쟁취하고 싶어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된 거다. 착한 딸, 좋은 아내, 슈퍼우먼 엄마, 책임감 있는 존재, 내 것을 양보하는 사람, 영성적인 사람, 희생해야 하는 역할 등 내가 써왔던 가면들이 비춰지면서 공감대를 느낀 시간이었다.

어둔 밤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하느님의 빛. 가면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배겨나기 힘든 자아 인식의 시간.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나약하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강생하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나의 본성적 존재를 향해 내려가야 한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 내면엔 언제든 들어가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성소가 있다.' 라고 했다.

오래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세속을 끊고 기도와 영성생활에만 집중했었다. 그때 내가 썼던 가면은, '수도자 같은 사람' 이었다.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봐줄 것 같았다. 잘못된 영적 신념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가로막으며, 내가 나 됨을 방해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부활을 체험했었다.

내가 입은 가르멜의 망토와 스카폴라가,

나를 지키고 평창시키는 가면(페르소나)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곳에 진짜의 내가 있고, 내가 만나는 이웃이 있으며, 나와 이웃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가는, 참 행복의 표징이 되기를 빌어볼 양이다.

출타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조아야 한다.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내면 깊은 곳! 알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동산이다. 하느님의 보화가 풍부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린다.*



박보규 가브리엘 수사 그림

2022년 6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제36장 해설: 기도와 용서하는 능력

1. 「주님의 기도」의 새로운 청원: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고 우리의 용서를 봉헌함

성녀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루는 것(셋째 청원), 우리는 매일 성체가 필요하다(넷째 청원)를 하나의 짝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도록 보증해 달라고 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원을 거치게 된다. 1) 하느님의 뜻의 신비, 2) 성체의 신비, 3) 용서의 문제.

이 책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속적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쾌락, 체면, 돈.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 명예, 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성녀는 그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명예, 명예심, “검은 명예”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 그것이다.

2. 본 장의 작성: 검열의 장벽

본 장 역시 검열관들은 살살이 검열했고 성녀에게 원고를 여러 번 다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수정은 본 장이 내포한 가르침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명예에 대해 성녀가 언급한 것은 주위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 - 성녀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시 “여러 수녀원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 에 대한 경고를 위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3. 기도와 명예심

“명예”라는 주제는 “우리가 용서하듯

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청원에서 유래한다. 무조건적인 용서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명예”라고 하는 이상이다.

성녀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해서 익숙해진 자신의 현실감과 더불어 이 주제에 접근했다. “명예심이 강한 나로선 일단 입 밖에 낸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자 3, 7). 그러니까 명예롭게 된다는 것은 성녀에게 “자연스러운 일”(자 2, 3)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녀는 수녀원에 살면서 그곳에 세속적인 명예심이 이상하게 탈바꿈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다(자 7, 4). 성녀는 수도자들에게 있는 변형된 세속적 명예가 당시 스페인의 수도 생활 전반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속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자매들이여, 행여 악마가 우리를 잊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녀원 안에도 악마가 꾸며 내는 명예가 있고 법이 있어서 세속에서처럼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3~4절).

데레사는 독자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알짜배기 수칙들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성녀는 가치를 전도시키는 이런 속임수에 등을 돌리도록 가르쳤다.

“체면이 무엇인지, 체면 깎이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오죽 좋겠습니까?”(3절). 그리고 수도자는 이미

“자신의 명예를 하느님께 드렸습니다”(11, 2)라고 말한 바 있다. “영혼의 잇속과 세속이 일컫는 체면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3절).

- “제발 이것을 깨달아서 그 모욕들이라는 작은 일을 가지고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체면을 따지는 그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3절). 성녀는 수도 생활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명예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수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녀가 말하는 이 ‘명예’ 를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4. 기도와 용서

「주님의 기도」 후반부의 출발점은 용서에 대한 청원이다. 용서는 기도와 매일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무엇보다 용서는 인간 인격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서(유감과 원한이 남아 있는 곳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가장 공통적이면서도 평범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청원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하느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짝을 이루면서 복음적인 철저함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드러난다. 하느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부적절함.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신 사랑의 신비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역설도 담겨 있다.

분명, 기도의 차원에서 성녀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신비였다.

성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남을 짓밟는 일이라든지 중상모략, 남을 깔아뭉개는 극단적인 상황 등을 말한다.

성녀는 기도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두 가지 상황을 구별했다.

1) 완전한 기도 수행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에 힘입어 용서라는 이 청원을 기도한다. 그들은 용서하는 데 있어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이 기도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해 준다.

2) 기도의 여정 중반에 있는,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의 경우는 이와 좀 다르다. 그들이 “적어도 결심을 갖고” (2절) 용서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모욕을 참을 결심, 힘이 들어도 참겠다는 그 결심.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일치에 도달할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상당히 빨리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진정한 기도는 그 자체로 마음 안에 동지를 트는 유감과 원한을 예방한다.

“좋은 영이 야기하는 효과들.” 그것은 용서의 정신이자 충격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자신에 대한 모욕을 기억과 마음으로부터 쉽게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모욕한 사람과 아주 잘 있을 수 있을 만큼” (12절) 자신을 충만히 채워 주는 것이다.

5. “기도-명예-용서”, 오늘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레사의 독자들은 삶을 돌이켜보고 이를 『완덕의 길』의 이 부분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충분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품, 위신, 명성, 품격, 존중, 자아실현, 자아, 인격의 권리,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 인물의 말과 가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성벽(城壁)이 그것이다.*

재속회 소식

관구 참사회 의정부 여자 수도원 방문



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3월 중순, 김형신 이냐시오 관구장님과 관구 참사회, 임원들이 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수녀님의 안내로 수도원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관구장님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모두 여덟 분이 계셨는데, 캄보디아 원장님으로 계신 수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잠깐 다니러 오셨다며,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여러 어려운 점을 말씀해주셔서 귀한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덟 분의 수녀님들은 한결같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셨는데, 성소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힘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십여 년간 법정 일로 방치되어 황폐했던 자연이 회복되어 가면서, 저희 수녀들은 물론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치유의 은총을 받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생활한다.” 며 또 창립까지의 긴 여정에서 영적, 물적으로 도움 주신 재속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미사 참례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로 26번길 177-7 전화 031-862-0709)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 보여주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운 일을 마련해주시는 ‘야훼이레’ 하느님을 떠올려봅니다.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김형신 이냐시오 관구장님과 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 수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김재신 예수의 안나
 - . 선종일: 2022년 2. 26 (향년 88세)
 - . 청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김선조 예수성심의 율리아나
 - . 선종일: 2022. 3. 1(향년 96세)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정갑무 성모성심의 마르타
 - . 선종일: 2022. 3. 19(향년 85세)
 -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도회 소식

* 이돈희 보니파시오, 송태선 라파엘 수사님 공동체 이동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이돈희 보니파시오 수사님께서 3월 17일 귀국하셨습니다. 보니파시오 수사님께서는 광주 공동체에서 생활하실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신 송태선 라파엘 수사님께서는 3월 18일 출국하여 미국 남가주 공동체로 이동하셨습니다.

*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성 400주년 기념 미사

3월 12일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성 400주년을 기념하는 강의(10시 30분)와 감사 미사(11시 30분)가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님의 주례로 서울 관구 본부 수도원에서 봉헌되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례로 이탈리아 로마 예수 성당에서도 예수의 성녀 데레사 400주년 및 4분 성인의 시성을 함께 기념하는 미사가 로마 시간 12일 오후 5시에 봉헌되었습니다.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4월 8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II)
5월 13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III)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성시간

- 날짜: 2022년 4월 30일
- 지도: 박종인 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이종욱 십자가의 안셀모 신부님께서 3월 20일 향년 63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입 회 1979년
- 첫 서 원 1987년
- 종신서원 1990년
- 사제서품 1990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 회원의 글 *

부활

안병희(아기예수의 썸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찬바람 부는

도로가에 성당 마당 한켠
 영성하게 꾸민 짚풀 위 마구간
 당신은 죽통에 누워 계셨어요
 너무 추운데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 지고 계실 때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성당 가는 길

담벼락 14처에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매달리며
 마음 한켠 내어놓지 못한 겁쟁이가
 우도의 기도를 올립니다

산모퉁이 돌아

새 속잎 올라오고
 명자꽃 참꽃이 피는 고운 계절에
 나에게 오신 님이시여
 어린양으로 당신 품에 안겨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당신을 마주 보아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1)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번제물의 희생으로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저를 끊임없이 태워주시기를 청하며,

당신 안에 담아 두신 무한한 부드러움의 파도를

제 영혼 안으로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느님!”

- 아기예수와 성면의 성녀 데레사 -